

‘입 행진곡’ 올해도 기념곡으로 못부르나

5·18특별법 개정안 3년째 국회 계류...보훈처도 미온적 각계 “지정 서둘러야” 한목소리...내달부터 촉구 운동

광주의 여명과 달리 ‘입을 위한 행진곡’의 5·18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 지정 현안이 답보상태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016년 발의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26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입을 위한 행진곡’ 공식 지정곡에 관한 내용은 담은 5·18특별법 개정안은 3건이다. 각각 2016년 6월1일(박지원 의원 대표 발의), 6월14일(김동철 의원), 7월20일(이계호 의원) 발의됐다.

박지원 의원의 개정안은 ‘입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5·18기념식에서 제창하도록 하고 있으며 김동철 의원의 개정안은 5·18 유가족 등의 의견을 수렴해 기념곡을 지정하고 기념식에서 제창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계호 의원의 개정안은 5·18기념식에서 ‘입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 발의돼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탓에 현재는 논의조차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철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5·18진상규명 특별법안이 발의되고 문 대통령이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실는다고 선언하며 ‘입을 위한 행진곡’ 공식 기념곡 지정 문제를 뒷전으로 밀린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 5월 단체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5·18기념식 때 ‘입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만큼 문재인 정

부 때는 반드시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5·18기념식을 주관하는 국가보훈처에서도 공식 기념곡 지정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5대 국경일, 46개 정부기념일, 30개 개별 법률에 규정된 기념일이 있지만 정부에서 기념곡을 지정한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애국가’도 국가 기념곡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할 경우 ‘국가 기념곡 제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추가 논의를 거쳐야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도 지난해부터 국회의원 100여명을 방문하는 등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입을 위한 행진곡’ 지정 현안을 국회의원들이 당장 시급하지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의원들을 상대로 꾸준히 기념곡 지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에서는 ‘입을 위한 행진곡’의 5·18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양희승 5·18구속부상자회장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입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법적인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돼야 한다”며 “5월 단체들도 다음달 중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에 대한 논란은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본다”며 “진상규명이 된다면 ‘입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을 비롯해 북한군 침투설 등 5·18 왜곡 문제까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수완동 산림조합 나무전시판매장 개장. 산림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들이 26일 개장한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산림조합 나무전시판매장에서 활짝 핀 봄꽃을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민단체 ‘새마을장학금’ 폐지 운동

“특정 자녀들에 세금지원 안돼”...오늘 실태 공개 기자회견

광주 시민단체가 특혜성 논란이 제기된 ‘새마을장학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광주일보가 이 문제를 2017년 2월부터 연속 보도한 이래 1년만이다.

근로정신대활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등 광주의 시민·사회단체 10개 단체는 “‘새마을 장학금 특혜 시민회의’를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단체는 27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2014~2017년까지 4년간 지급된 새마을 장학금 내역과 지급 실태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 단체들에 따르면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1986년 제정된 ‘광주시 새마을장학

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 올해로 32년째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새마을장학금은 매년 막대한 세금을 단지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이라는 이유로 지급되며 조례 폐지 목소리가 높다는 주장이다.

이국인 집행위원장은 “새마을회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도 모자라 매년 장학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시민단체들이 모여 ‘새마을 장학금 특혜 시민회의’를 구성,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다문화가정 교사상담 통역서비스

광주교육청 중국·베트남어 등 11개 언어

올해부터 광주지역 유치원, 초·중·고교에 다니는 다문화학생이나 부모들이 교사들과 상담할 때 통역서비스가 제공된다. 가정통신문 번역서비스도 대상과 지원언어가 대폭 확대된다.

광주시교육청은 다문화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통번역서비스 실시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다문화학생(학부모) 통역서비스는 지원 언어가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 일본어, 필리핀어, 아랍어, 우즈베키어, 태국어, 몽골어, 우르드어 등 11개다.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언어도 학생상담시 필요하면 시교육청과 학교가 광주국제교류센터와

협의해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과 공교육 진입을 준비 중인 다문화 학생이며, 학부모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통역이 필요한 각 학교와 시교육청 산하기관이 광주국제교류센터에 이메일(sing@gic.or.kr) 또는 전화(062-226-2733)로 신청하면 비용은 시교육청이 부담한다.

가정통신문 번역의 경우 대상과 지원언어가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번역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지원언어를 11개로 늘리고 대상도 유치원과 예비 학생으로 확대했다.

번역은 발송 1주일 전까지, 통역은 실시 3일 전까지 광주국제교류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김형호기자 khh@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05 해질 18:26
 일출 15:22 일몰 04:47

한발 다가선 ‘봄’

남해상을 지나가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아졌다.

지역별 날씨(°C)

광주	구름많음	0/16	보성	구름많음	-2/13
목포	구름많음	1/12	순천	구름많음	0/15
여수	구름많음	3/14	영광	구름많음	-2/12
나주	구름많음	-4/15	진도	구름많음	0/12
완도	구름많음	4/14	진주	구름많음	0/14
구례	구름많음	-4/15	군산	구름많음	-2/11
강진	구름많음	-1/15	남원	구름많음	-4/15
해남	구름많음	-2/14	축산도	구름많음	3/11
장성	구름많음	-3/14			



바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남서	0.5	남동~남	0.5
남부	남~남서	0.5~1.0	남동~남	0.5~1.5
남해	남~남서	0.5	남동~남	0.5
남부	남~남서	0.5~1.0	남동~남	0.5~1.5
서부	남~남서	0.5~1.0	동~남동	0.5~2.0

생활지수

☀	매우높음
☁	높음
☔	매우높음
☁	보통
☔	매우높음
☁	보통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4:52	12:13
	17:49	--:--
여수	00:41	07:24
	13:35	19:38

주간 날씨

28(수)	3/1(목)	2(금)	3(토)	4(일)	5(월)	6(화)
☔	☀	☀	☔	☀	☀	☀
6/12	2/8	-2/11	2/14	4/11	4/10	2/10

고영구 신임 광주가정법원장 취임

고영구(60·사법연수원 20기) 신임 광주가정법원장은 26일 “학대받은 아동과 같은 가정 내 약자, 해체된 가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신임 법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가정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가사 및 소년사건은 단순히 송사에 대한 판단 기능을 넘어 치유와 회복을 위한 후견적 역할과 복지적 기능까지 가정법원이 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은 양보다 질적으로 좋은



재판을 해야 할 때”라며 “좋은 재판은 개별 사건에 맞는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는 질적 해결 중심의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고 신임 법원장은 제주 출신으로 금요일 공교, 성관대 법학과를 나왔으며 제30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박진표기자 lucky@

쿠바 한인 애국지사 7명 더 찾았다

임시정부 독립자금 지원...전남대 봉사단 총 15명 발굴

전남대학교가 지원한 쿠바 한인 후손 찾기 봉사단이 3·1절 99주년을 맞아 쿠바 한인 독립운동가 중 서훈 미전수자 7명의 후손을 찾았다.

26일 전남대에 따르면 정치외교학과 강재기(재외한인학회 회장) 교수를 단장으로 학생 4명이 참여한 봉사단이 지난 2일부터 14일까지 쿠바의 아바나·마탄자스·카르데나스 등을 방문해 독립운동가 후손 찾기 활동을 벌였다.

봉사단은 이번 현지 활동에서 강홍식·김치일·이우식·김명옥·박두현·이윤

상·이인상 등 7명의 쿠바 한인 애국지사 후손을 찾았다. 이들은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미국의 대한민국민회를 통해 상해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지원한 공로로 한국정부로부터 서훈이 추서됐다.

그러나 당사자인 1세대들이 모두 사망한 데다 미수교 상태인 쿠바와 단절되는 바람에 귀중한 서훈이 전달되지 못했다.

김 교수를 비롯한 전남대 봉사단은 지난 2년간 지속해서 추적 조사를 벌여 이번 7명을 포함해 총 15명의 서훈 미전수자를 발굴했다. /윤영기자 penfoot@

호남지역 대표주자 YHB집진기 산업현장/요식업분야 환경을 확보드립니다

Y31Y AS24 YHB 31년의 역사와 기술이 요식업소, 산업현장 **미세먼지/오일미스트/연기**를 완벽히 제거합니다

미스트 크리너

하나의 바디, 네가지 기능
미스트크리너를 새롭게 개발하다

머시닝센터, CNC 선반, 밀링가공
방전기공 외 미스트 발생 공작 기계

요식업소용 전기집진기

직화구이 연기, 미스트, 미세먼지 **민원해결사**

직화구이점 미세먼지 배출주의보 발령
대기오염 규제 대응 해결책

6-사이클론콜렉터

더스트크리너의 새로운 창의, 새로운 발명
사이클론을 한 몸에 품다

그라인더작업, 금속절단가공, 드릴작업, 아크릴가공
절삭작업, 파쇄, 석재가공 등 분진 발생하는 작업

(주) YHB ECO / 주식회사 YHB

www.yhbeco.com / www.yhb.co.kr
E-mail : eco6400@hanmail.net

본사 및 영업본부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2 4501호 Tel. 02-2029-6400 Fax. 02-2029-6404
 광주 공 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5번로 45(장덕동) Tel.062-953-2995
 익 산 공 장 : 전북 익산시 석암로1길 4(용재동) Tel.063-835-4771